

## “아! ~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변사극이 돌아왔습니~”

‘검사와 여선생’에서 변사 역할을 맡은 윤희철씨가 1일 극이 공연될 씨디아트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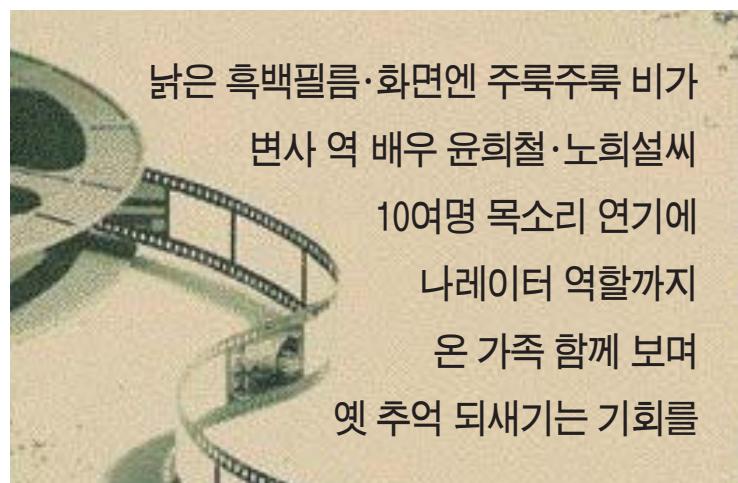
### 광주 ‘씨디아트홀’ 12~22일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공연

지난 1일 전남대 정문 인근에 위치한 공연장 ‘씨디아트홀’에 들어서니 영화 상영이 한창이다. 낡은 흑백 필름. 화면에선 주목주목 비가 내리고, 가끔 화면이 뚝뚝 끊기기는 하지만 주인공들은 철새 없이 연기 중이다.

그런데 영화에 ‘소리’가 없다. 화면 속 배우들은 말이 없지만, 구슬픈 주인공의 사연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주인공들을 대신해 그들의 대화를 들려주고, 속내를 알려주는 ‘어떤 사람’ 덕분이다. 바로 변사다. 이날 공연장에서는 연극 배우 윤희철씨가 변사 역할을 맡아 한창 연습중이었다.

무성영화가 변사극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역에서는 첫 번째 시도다.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대표 이행원)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무대에 올린다. 12일~22일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5시 소극장 씨디아트홀.

지금의 영화와 달리 인물의 대사와 음향 효과 등 소리가 없는 영화인 무성영화는 1900년대 초 외국에서 들어온 후 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외국에서는 주로 자막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변사’가 스크린 옆에 앉아서 주인공들의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상황을 설명했었다. 나비 넥타이를 매고,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팔



방미인’ 유명 변사들은 배우 못지 않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작품에서 변사 역할을 하는 이는 연극배우 윤희철씨와 노희설씨다.

올해로 연극인생 31년째를 맞은 윤희철은 전국연극제 연기상 등을 수상한 베테랑 배우고, 노희설씨는 KBS TV ‘생방송 투데이’와 KBS 라디오 ‘빛고을 가요 차차차’ 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성우이자 연극인이다.

특히 윤희철은 오래전부터 ‘변사’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2007년 개그맨 전유성씨가 제작했던 ‘순애, 내사랑’의 연습까지 참여했다 개인적 이유로 무대에 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무성영화와 변사의 결합은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예요. 광

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 힘들기는 하지만 윤희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싶습니다. 변사 역할이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매력있거든요.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업해볼 생각입니다.”

윤희철은 기존의 무성영화 뿐 아니라, 요즘의 이야기를 다른 ‘영상들’을 직접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등 ‘변사극’을 하나의 장르로 키우고 싶은 꿈도 갖고 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검사와 여선생’은 한국의 마지막 무성영화다. 자신을 사랑으로 가르쳤던 여선생님을 살인 피의자로 법정에서 만난 검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상영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문의 062-521-7555.

연출을 맡은 이행원씨는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작품을 제작하게 됐다”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4인 가족 예매권 4만원. 연극촌(<http://cafe.daum.net/drama2003>)에서 예매 시 1만2000원.

문의 062-521-7555.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 등 10여명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극을 설명하는 나레이터 역할도 한다.

혼자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해야 하니 체력 소모가 만만찮다. 또 모노드라마는 연기에만 몰입하면 되지만 변사는 영화 장면의 흐름까지 체크해야 하는 터라 신경쓸 일도 많다.

제작진은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필름을 구입, 작품 제작을 준비했고 막간극과 막간소리를 곁들이는 등 볼거리를 강화했다. 주인공이 영화관을 찾는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각석에서 물건을 팔며, 검문검색 장면에서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연극적 재미를 곁들였다. 또 트로트 가수인 흥수아, 수아 등이 직접 출연해 막간 공연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래도 들려준다.

연출을 맡은 이행원씨는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작품을 제작하게 됐다”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4인 가족 예매권 4만원. 연극촌(<http://cafe.daum.net/drama2003>)에서 예매 시 1만2000원.

## 한국화가 허달용씨 개인전 ‘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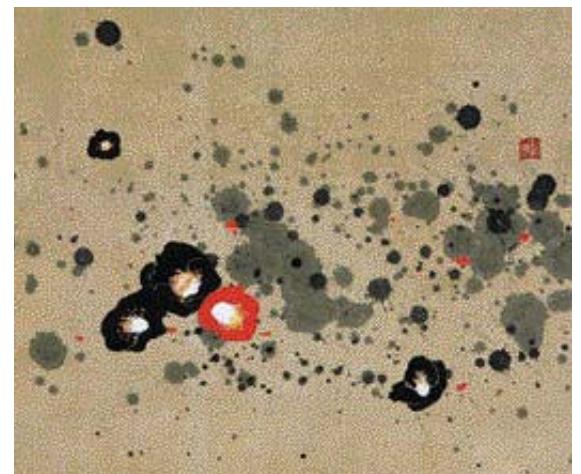
10~30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한국화가 허달용씨가 오는 10~3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내에 위치한 로터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허씨는 이번 전시에서 화선지의 범지의 효과를 살린 ‘낙화’ 연작 등을 선보인다. 나무와 인간, 나무와 나무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대립과 갈등, 보수와 진보의 상생을 염원하는 작품이다.

물방울이 스미고, 범지는 모습을 통해 수목화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작품으로 붉은 색의 강렬한 꽃의 이미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화가의 지갑’, ‘전국민족미술전’, ‘신나는 예술여행 나주 다섯마을 이야기’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또 한국민족예술인총



‘낙화’

연합 이사, 광주민예총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383-007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아톰’ ‘철인 28호’ … 추억의 로봇 보러 오세요

김대중컨벤션센터 23일까지

‘로봇 아트와 놀이의 세계’ 전



움직이는 나무 로봇을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김대중컨벤션센터 제공

‘액의 아르바이트’ 등 생활용품과 폐자재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더글러스 러셀의 ‘울리버 건’과 메르세데스 모노 사이클’

표정 만들기’와 ‘미니 나무조각 꾸미기’ 등 다양한 창작미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의 062-611-33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스마트폰 활용교육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인터넷을 안고 찍은 사진 1장도 함께 선보인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영혼을 달랠 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테디베어 인형이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에 전시된다.

광주비엔날레 제단은 2일 “이번에 전시되는 인형은 미국의 한 독지가가 1912년 영국인 희생자 492명을 위로하기 위해 492개의 테디베어를 만들어 영국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인형이 포함된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이데아 헨델스가 각국을 돌며 모든 테디베어를 안고 있는 3000여명의 세계 각국 사람들의 사진과 실물 테디베어 인형 10여점으로 구성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하남점
1관 슈렉포에버(더빙)(전체)	1관 슈렉포에버(더빙)(전체)
2관 인셉션(12세)	2관 인셉션(12세)
3관 인셉션(12세)	3관 인셉션(12세)
4관 이클립스(12세)	4관 이클립스(12세)
5관 마법사의계자(전체)	5관 마법사의계자(전체)
6관 이끼(15세)	6관 이끼(15세)
7관 이끼(15세)	7관 이끼(15세)
8관 솔트(15세)	8관 도라에몽(더빙/전체)
9관 솔트(15세)	9관 솔트(15세)
10관 명탐정코난(전체)	10관 솔트(15세)

상당현대극장 1관(15세)~2관(12세)→0번  
☎ 1588-7941

영화보기! 영화시청!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joycbc.com](http://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최고급관
1관 솔트 (15세)	
2관 솔트 (15세)	
3관 인셉션 (12세)	
4관 이끼 (15세)	
5관 고사2고생 실습 (15세)	
6관 미움이2 (전체)	
7관 마법사의계자 (전체)/솔트 (15세)	
8관 이끼 (15세)	
9관 인셉션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은 허용 : 2시간 30분 초과시 통상요금 부과)

복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세계적인 영화관체계 [www.cinus.co.kr](http://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